

사회혁신 오픈클래스

무엇이 우리를 사회혁신가로 만드는가?

개요

일시: 5월 20일 화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서울청년일자리허브 세미나실

대상: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은 청년,
다양한 사회혁신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자신과 조직에 대해
생각이 복잡한 모든 분들

주제: 무엇이 우리를 사회혁신가로 만드는가?

연사: 재클린시몬스 (Jacqueline Simmons)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Teachers College 교수

이날의 오픈 클래스, '무엇이 우리를 사회혁신가로 만드는가?'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Teachers college 재클린 시몬스 교수의 연구
라제인 프로젝트 이노베이션 (Project Innovation)를 통해 사회 혁신을 바라보는 시각 및 행동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
누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오픈클래스는 청년허브의 청년학교 국제교류학교의 학생들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준비한 오픈 클래스로, 사회혁
신에 대한 궁금증과 '라제인 내가 사회혁신가인가?'를 고민 혹은 관심이 있는 약 50여명의 분들이 함께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몰입도 높은 시간으로 진행된 이날의 오픈 클래스의 현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서 모이세요~

프로젝트 이노베이션 (Project Innovation)은 2011년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시작되었고 미국 뉴욕을 기반으로 하여 영국과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회혁신 프로젝트이다. 이날의 연사 재클린 시몬스 교수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교수 학습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으며, 사회혁신에 관심이 있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과 조직에게 필요한 사회혁신의 사고방식과 태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가지 방법론과 툴킷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과 툴킷이 만들어지고,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혁신 툴킷은 기본적으로 사회혁신을 위한 방법론과 구체적인 기술(Skill)을 사람들이 손쉽게 자신들의 현장에 적용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인 새로운 혁신의 성과를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프로젝트 이노베이션(이하 PI)'에서는 사회혁신이란 단순히 혁신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혁신을 계획, 실행하는 사고방식(Mindset)의 변화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PI의 툴킷은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사고방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결국 혁신이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다. 이에 PI의 사회혁신 툴킷은 사람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방식을 바꾸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혁신 사고방식(Mindset)의 개발을 위한 세가지 키워드

: Frequency, Deep Thinking, Redefining Impact

1.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속한 공동체와 일터 등의 공간의 분위기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인식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위기, 기운, 경향성을 가리키기 위해 PI에서는 '**Frequency(주파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Frequency를 나누는 기준에는 우리가 보내는 하루의 일과, 일을 처리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체계까지도 포함되는데,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3개의 Frequency

- 1) 관료적(Bureaucratic): 위계에 따른 차등적 책임과 기회가 주어지는 분위기와 환경이다. 강압적이고 엄격하며 조직적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기피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 2) 창의적(Creative):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관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협력방법, 유동적인 의사결정방안 등을 고려하는 분위기, 환경을 말한다. 관료적 주파수가 허용하지 않는 범위의 것들을 고려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 3) 혁신적(Innovative): 창의적 반복성에서 좀 더 발전된 것으로 특정 현상과 패턴이 발생한 이유(Why)를 묻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이 왜 만들어졌고, 왜 좋은지, 혹은 왜 나쁜지, 바뀔 순 없는지 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된다.

2. 우리의 주변, 일터, 공동체 등의 공간의 주파수를 이해하고 파악했다면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고찰(Deep thinking)**이다. 이 단계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변화를 구체화하고 개념화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인 단계이다. 생각을 의도적으로 깊이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연구조사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생각을 하여 궁극적으로는 행동하는 것을 고찰의 전 과정으로 본다. 두뇌의 의도적인 운동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행동을 통한 변화까지를 고찰의 과정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Deep Thinking = Research + Thought + Action

3. 고찰을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해당 업무나 분야에 대한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는 바로 **영향력 재정의(Redefine Impact)**에 해당한다.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투입하고, 성과를 내는 일련의 사회혁신 과정 전체를 재조명해보는 것이다. 이 때 사람, 환경, 시간, 의사소통 방식, 성과 등을 영향력의 구성요소로 고려하게 된다.

- 사람(People): 활동과 연관된 수혜자, 직원, 의사결정자
- 환경(Environment): 활동이 일어나는 물리적, 온라인과 같은 가상적 공간
- 시간(Time):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 구분된 활동의 주기
- 의사소통(Communication): 우리가 활동 및 소통을 표현하는 용어 및 방식
- 성과(Outcomes): 활동의 최종 결과물 혹은 목적의 해석

위의 요소들은 서로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여 결과를 만들어내며, 각

구성요소가 바뀌면 다른 구성요소의 작용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사회혁신 마인드셋을 통해 바라본 세 가지 구체적 사례들

1. 포이어 재단(Foyer Foundation)

청년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찾아주는 기관으로, 소외계층의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경제적 자립에 대한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주는 재단이다. 다양한 관련 강의와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년들의 미래, 꿈을 찾게 해주기 위한 노력을 해왔으나, 안타깝게도 청년들의 미지근한 반응과 낮은 참여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재단은 PI 사회혁신 툴킷을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변화를 꾀한 사회혁신 사고방식의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사람(People):** 이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즉 소외계층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재단이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보니, 청년 스스로 자신을 결핍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어(Language):** 대화의 내용이 기존에 어떤 일을, 왜 못하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해,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대화의 내용과 청년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환경(Environment):** 열린 공간을 만들어 보다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서로간의 친목도 모를 활성화 하였다.

-**시간(Time):**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 및 활용하도록 하고, 일과 사생활의 분리를 통해 직원들이 느끼는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의사소통(Communication):** 일반적인 자선단체가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청년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들이 가진 재능과 활발한 활동을 부각시킴으로써 긍정적인 공감을 유발하였다.

2. 커뮤니티를 위한 희망(Shining Hope for Communities)

케냐에 있는 기관으로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공동체의 인식과 편견을 없애고자 했던 한 남성이 시작한 기관이다. 자신의 여동생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가 박탈당하자, The Kibera School for Girls라는 여성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였다. 하지만 여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속에 학교 운영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이 남성은 교육의 문제가 결국에는 교육 한 분야의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 사람들의 인식에서 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이라는 주제를 넘어 **분야를 넘어선 접근(Cross Sector Approach)**을 통해 마을의 문제를 학교가 해결하는 방식을 취했다. 마을의 문제가 여학교와 연계되고, 여학교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었던 것이다. 현재 Kibera 마을에 있는 공동 화장실과 물탱크는 The Kibera School for Girls에서 운영 중에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여성들 역시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주체로 인식되는 긍정적인 사회 변화가 이뤄졌다.

3. 퀸즈 박물관(Queens Museum)

미국 뉴욕의 퀸즈는 저소득층의 사람들, 그리고 외국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이다. 이곳에 위치한 퀸즈 도서관의 담당자들은 마을과 공동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주민들과 함께 하고, 이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 지하철 근처의 버려진 외벽 공간을 도서관으로 바꾸어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예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으로 바뀌었다.

PI에서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가지 방법론과 15가지에 대한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과 이에 따른 기술들이 개별적으로 나와있지만, 여러 가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프로젝트이노베이션의 공식 웹사이트인 <http://www.socialinnovationtoolkit.com/methods-skills.html>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다